

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글이다. 그래서인지 글쓰기와 독자의 소통은 글이 완성되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나는 글을 완성해가는 여정 중에도 독자와 만나는 즐거움을 꼭 누리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때 이루어지는 좋은 독자와의 대화는, 어쩌면 완성된 글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 글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내 부족함을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글의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글을 보여주면 어떨까. 언젠가 좋은 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CTL 글쓰기교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환영이다. 내 글을 열심히 읽어주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글쓰기 과정에서 늪을 만나더라도 한걸음 즐겁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의 즐거운 대학생활

– 첫 학업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박 알 뜨 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 상담원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갖는 일 혹은 잊고 싶은 기억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첫 학업에 큰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서울대 신입생들에게는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것은 큰 시련이며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만약 대학 첫 학기에 기대한 만큼의 시험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혼자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좌절과 자책의 밤을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동기 혹은 선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분석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겪을수록 낯설고 두렵고 무섭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우리는 실패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실패가 덜 두렵기를 바랄 뿐이다.

A는 대학에 들어와서 첫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만 합격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런 A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경험들을 시도해보고, 동아리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시험공부에 충분히 매진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결과 A는 중간고사 시험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A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은 것만 같고,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위축감이 들었고, 누군가 자신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이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A는 자신의 성적을 감추게 되었고, 속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만 노력해도 웬만큼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오니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열심히 해도 그 친구들한테 비교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A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점점 학과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다.

이런 경험은 비단 A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있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험의 특성상 시험 결과에 따라 석차가 매겨지므로 고등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성적과 석차에 충격을 받는 것은 A뿐만이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첫 번째 실패를 회피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 후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패배감을 어떻게 다루어나가느냐에 따라 이후에 대학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더라도 그동안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첫 번째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실패에 대한 내 감정을 덮어두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나는 얼마나 두려운가? 무엇이 두려운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은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봐주는 일은 필요하다. 감정이라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는 알아봐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언젠가는 폭발해버리거나 나도 모르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그건 아마도 잘 하고 싶었던 바람, 혹은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커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 바람들을 확인하고 '맞아, 내가 잘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더 힘들었구나'를 알아주고 스스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 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이런 마음을 사소한 것이나 드러내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셋째, 내가 받은 성적과 나 자신을 떨어뜨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성과와 나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많은 일을 이루어야 '내가 멋진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나 = 시험실패자 =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성적이 때로는 나를 대변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성적 자체가 나는 아니며, 소위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다. '성적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더 노력하자.' 라는 자세로 내가 혹시 성적 때문에 나 자신을 폄하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준 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믿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

우자. 수많은 과거의 경험이 쌓여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힘든 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이므로 나에게도 나도 모르는 힘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적 향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온 나 자신을 믿고, 보다 긴 안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변에 나를 도와 줄 자원들을 찾아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12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대학에서 접하는 자원이라고 하면 친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선배 혹은 학과 조교, 그리고 교수님이 포함된다.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의외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안들을 알려줄 것이다.

또 다른 자원으로는 대학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런 서비스 이용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졸업 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학교 기관들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더욱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에서는 시간 관리를 비롯하여, 공부 계획 세우기, 학습 방법코칭, 학습 상담, 워크숍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소한 학습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학습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지지와 지원을 받는다면, 대학의 첫 실패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